

신임교원 간담회 마무리 발언

(2018. 9. 11. 학술문화관 스카이라운지)

오늘 참석하신 신임교원들을 보면서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을 만나니 최종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학교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KAIST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건의 혹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취임과 동시에 어린이집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어린이집이 현재의 2배로 증축이 되면 박사과정생들의 자녀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인력운영 면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2년간 이어온 2만 불 시대를 마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중진국의 덩에 갇히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의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 대학’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KAIST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벌써 30년이 흘렀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보람된 나날을 보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순간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학과장, 학장, 부총장 등 단계를 밟아가며 어려움을 알려주시고, 학교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정적 절차에 막혀 의견개진이 어려울 경우 직접 총장을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KAIST의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11.



KAIST 총장 신 성 철